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 다니엘 9장
11-19절

(Tag:공의,국정교과서,좌편향,전교조,역사의식,구약성경,다니엘)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
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9:11-19)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과서 맨 처음에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We slaved in Egypt for 400 years.’ (우리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 뼈아픈 역사지만, 결코 잊지 않고 살아
가고 있다.(350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역사의식은 참 중요하다. 나
혼자 사는게 아닌, 공동체요, 나만 잘 살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깨
우치기 때문.)

-우리도 36년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객관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게 아니며, 전쟁을 통해서 나
라를 되찾은 것도 아니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예상하지 못
했으며, 독립을 준비한 자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당시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려는 시도는 무슨 의도일까?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굳이 일본에게서는 단점만 이야
기하려는 것은 애국일까, 자존심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반대로 우리
가 일본을 점령했다라면 정말 신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대우했을까?

-대한민국의 분단은 한국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통일
또한 한국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현재 한국의 적은 일본이 아니며, 친일파들도 아니며(그들은 없고,
있어도 소수 오타쿠), 북한사람들도 더군다나 아니며, 누구나 알 듯이
미국이나 중국도 아니다. 오직 한국의 적은 김일성 우상인데, 사실
김일성은 이미 죽었다.(그 우상화를 통해서 떡을 차지하려는 자들이

적이다.)

-다만 김일성 우상을 외치는 소수 잔당들이 자신들의 정권욕망을 위해 김일성 우상을 이용하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념갈등이 심하다.

-그런데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면적 이념 갈등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다른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자유로운 토론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이 되는 이유는 김일성우상화 잔재세력들의 정권야욕 때문이다. (독일과는 사뭇 다르다. 동독인들에게는 정권야욕이 없었다. 정권욕은 있었을지 몰라도 야욕까지는 아니었다. 남한에서 정권을 쥐려는 자들도 북한에게 정권을 바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튼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이런 소중한 자유를 깡패같은 집단들, 이기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역이용하게 되면서 현재의 한국사회는 고통스럽게 일그러지고 있다.

과거에는 독재자들이 있어서 개인의 인권을 짓밟았다.

지금은 집단이기주의에 물든 무리배들에 의해서 개인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극우성향집단, 극좌성향집단, 노동단체들, 전교조, 깡패들, 이단들, 동성애자들, 심지어 노점상 연합회까지(분위기에 편승).

-언제부터인가 억지 부리고, 큰소리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덤비는 자들에게 대다수의 개인은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득달같은 소수 이익집단의 권리는 보장해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유주의의 이념을 소수집단들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정교과서 논란의 시작은 좌편향 역사 집필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북한식 역사의식을 가르치고, 미국을 아직도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전교조 활동을 통해서 교과서가 아닌 자신들의 이념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고, 교학사에서는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교과서를 공격해서 일반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것이 명백하게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이다.)

-하는 수 없이 국가가 국정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대다수 건전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르게 집필될 수 있도록 하는게 과제가 될 것이다.

-학문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 또한 자유롭게 하겠지만, 개인적인 역사 해석을 공교육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말이다.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같이 분명하게 학계에서 용인된 기초지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견이 있어도 토론의 대상일 뿐 갈등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휴전 상황이고, 북측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념교육은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역사를 북한식으로 가르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그것이 자유인가?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역사해석을 주장하는 교과서라고해서 집단적으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 주장을 못하게 하는 강패같은 짓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에서 용인될 일인가?

-그러면서도 버젓이 ‘임금도 감히 역사는 고치지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고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는 식의 현수막이 가능한가? 역사를 왜곡하는 당사자가 할 말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적반하장은 대부분 분수를 넘어서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예로부터 적반하장은 무분수라 했거늘...^^)

-팩트로 볼 때 김일성 일가가 이룬 업적은 놀랄만 하다. 그리고 그 악영향 또한 놀랄만 하다는 것이 팩트이다. 그러나 그가 초래한 모든 악영향은 자신이 만들어낸 주체사상만큼 악하지는 않다. 왜냐면 주체사상은 이상화이기 때문이고, 이상화는 가장 악독한 죄악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을 이용하려는 소수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자신들의 정권야욕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정권야욕의 들보를 빼야 진정한 역사가 보일 것이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이나라의 정권을 맡기지 않을 것을 믿는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서 바른 사관을 위한 백신을 만들고 계실 뿐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과거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팩트에 기초한, 겸손하고 간절한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 (누군가를 종복으로 몰고, 누군가를 친일로 몰고, 누군가를 유신 잔재로 몰아가는 것이 참된 애국은 아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나라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는 의도 자체가 음흉하고 악한 자신의 욕심을 가리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의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나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나라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로 설교를 마치려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 율법주의에 빠져 세상 변해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본에게 국권을 내 주어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상숭배, 조상숭배, 당파싸움, 반상의 갈등, 이로 인한 부정 부패로 말미암아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긴 채 서양문물과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아무런 힘을 기를 수 없었기에, 해방이 되었지만 재빨리 북한 땅을 차지하게 된 공산당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남한에는 오랫동안 미국을 순회하며 한국을 도울 자는 미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이승만대통령을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에 감사 합니다.

-그러나 결국1950년 김일성은 남한에 쳐들어왔고, 동족상잔의 비극 앞에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이 이 나라에 승리를 주셨으며, 그 후 우리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며 일치단결하여 과거의 부끄러움을 씻어내려고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김일성우상화에 물든 세력들이 편협하고 왜곡된 역사의식을 이용해서 나라의 국권을 차지하려고 덤벼두고 있으니, 저들의 적화야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적 통일을 허락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미국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가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분명하게 알려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성경: 마태복음 7장 21-29절
(Tag:불법,가짜기독교인,믿음올법주의,산상보훈,신약성경,마태복음)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7:21-29)

21절은 분명히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다.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구원론의 핵심.

(이 명제는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돈을 버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누가 치유 받느냐는 구원 부속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원론적인 명제)

21절에는 논리적으로 두가지 명제가 담겨있다.

1번-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2번-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번 명제와 2번 명제의 관계는?

교집합일까? 합집합 개념일까? 중속개념일까? (무엇이 큰 개념일까?)

-두 명제는 동전의 양면개념이다.

1번이 2번을 증명하고 2번이 1번을 증명하는 개념이다.

즉 21절은 증명 명제이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은 항변명제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증거를 신령한 은사에 두려는 자들의 항변이다.

-귀신도 좋으며,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그 아들임을 믿고 댈다.

-귀신도 자신의 영적인 기능인 거짓말을 이용하여 은사자들을 속이며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케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다.

-선한 일로 따진다면 종교를 떠나서 착한 일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선행에 힘쓰는가?)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특징은 불법을 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떤 종류의 불법도 행하지 말라.